

훌륭한 어머니상 수상림 · 봉사부문 김영숙씨 수상

포천시 제13회 여성주간 맞아 기념식 · 전시회 개최

포천시는 제13회 여성주간(7월 1~7일)을 맞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제13회 여성주간 행사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부대행사로 여성정책 발전의 계기가 되고자 여러 분야로 나누어 다채롭게 진행됐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의 의견을 수렴해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포천시위원회 의원성인지정책 교육이 7월1일 실시됐으며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결혼이민자 기본예절 및 생활문화교육이 2~3일 유림회관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또 기념식과 축하공연이 3일 오후 3시에 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되는데 기념식에서는 여성상과 여성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개인·단체 시상과 축하공연으로 가수 김도향 콘서트가 개최됐다.

여성대학 학습동아리는 그동안 같고 다투는 기량을 담은 솜씨를 자



포천시는 제13회 여성주간(7월1~7일)을 맞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선바자회를 통하여 자랑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및 아동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및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우리아이 지키기 서명운동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개하기도 했다.

7월3일 개최된 기념식은 서장원 포천시장을 비롯한 각 단체장, 여성단체회원 및 시민 250명이 참석했으며 포천시여성상과 여성발전 유공자, 여성대학우수동아리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영예의 여성상에는 훌륭한 어머

니에 영준명 수상림씨, 봉사부문에 소홀함 김영숙씨, 여성발전유공자에 포천동 손운선씨, 우수동아리에는 요리사들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기념식에서 서장원 포천시장은 "21세기는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포천시 여성단체가 더욱 발전하여 우리사회의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중호 포천시의회 의원은 "이번 여성주간이 포천시 여성의 지위향상의 계기가 되고 시민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이루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상자에게는 김순임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오정순 경기도 포천교육장, 이보형 포천소방서장, 황일현 농업중앙회 포천시지부장, 정영자 포천시보육시설연합회장, 최계숙 새마을부녀회장, 엄승욱 전 수상자 등이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 단상



감사의 힘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어느 여자 집사님의 체담이다. 그의 남편은 알콜 중독자였다. 남편은 날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변변한 직장도 가지지를 못하고 아내가 식당 일을 해서 버는 것으로 겨우 가족들이 끼니를 때울 정도였다.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남편을 대할 때마다 구박을 했다. 그러던 남편도 술김에 버럭 화를 내면서 더 심하게 술 주장을 했다.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면 늘 울며 기도했다. 그래도 남편은 조금도 변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별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성경말씀을 읽게 되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는 이제껏 남편을 원망하면서 낙심하기만 했지 단

한번도 남편으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남편이 술을 마셔도 외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했다. 술 마시다가 쓰러져도 집에 와서 쓰러지는 것으로 감사했다. 자기가 주일이면 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다. 남편이 술을 마셔서 그렇지 천성은 착한 사람인 것으로 인해 감사했다.

아내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남편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다 보니 남편으로 인해서 감사할 일이 꽤나 많았다. 계속 남편을 생각하며 감사하다 보니 남편에 대한 생각이 새로워지기 시작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사는 이도 있는데 그대도 자기에게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진정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달라진 태도에 감명을 받은 남편이 이렇게 물었다. "여보 마약중독자도 변화될 수 있는데 나도 교회에 가면 알콜 중독을 고칠 수 있을까?"

아내의 감사의 힘이 마침내 남편의 변화를 가져오랴 말았다. 감사의 힘은 이렇게 변화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신다. 성서는 그래서 이런 교훈을 주신다.

시편37권4절에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문외) 031-532-2489

포천초등학교 제22회 반월문화제 最高학교로

포천문화원 반월문화제 우수작품 전시 및 시상식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7월 5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김영우 국회의원, 서장원 포천시장을 비롯 이강립 포천시의회장 등 각급기관 단체장과 수상자,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반월문화제 우수작품 전시 및 시상

식을 가졌다. 이날 전시회는 사생 및 서예, 사진 등 우수작품 135점과 전국 회화대회 입상작품 89점을 함께 전시해 작품의 우수성과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등 자긍심을 심어 주는 한편 서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상식은 백일장, 사생, 서예, 사진 등 분야별로 차하 및 우수이상 125명, 향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 24명, 좋은 책 읽기 독후감 감상자 13명 등 162명에 대하여 각급 기관장이 직접 시상하여 대회의 권위를 높였다.

제22회 반월문화제에 가장 많은 참가자와 우수입상자를 배출한 학교에 주어지는 상은 포천초등학교가 차지했다.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제22회 반월문화제는 다른 해보다 많은 학생들과 시민이 참여하여 우수한 작품들이 더욱 많이 출품되고 제가치가, 더욱이, 투호 등 함께 즐기는 모습은 종합 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춘 시민축제의 장으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했다.

또한 포천문화원은 이날 제22회 반월문화제 우수작품집 '반월22'와 회화대회 작품집을 발간해 배포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문화원은 7월5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각급기관 단체장과 수상자,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반월문화제 우수작품 전시 및 시상식을 가졌다.

새인/를

평강식물원 총무부장 이유성



국내 최대의 약용자연 생태식물원 평강식물원 총무부장에 이유성(사진) 전 포천시 국장이 7월1일자로 부임했다.

이 부장은 6월30일 정년 퇴임을 하고 평강식물원에 총무부장으로 부임해 18만여평의 부지에 조성된 식물원을 관리하는 총괄업무를 맡고 있다.

18만평의 식물원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암석원과 고산습지, 이끼원, 흰 꽃만 모아 놓은 화이트 가든, 들꽃동산, 습지원 등 12가지 테마 정원에 수많은 약용식물들이 자연의 모습 그대로 가꾸어져 있다. 평강식물원의 설립이념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자연사랑'이다.

이 부장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평강식물원에서 일하게 돼서 기쁘다"며 "이 좋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체육회 사무국장 오대근



포천시 체육회 사무국장에 오대근(46·사진)씨가 7월2일자로 부임, 업무를 시작했다.

오 사무국장은 22년간 포천시청에서 공직생활과 1년 6개월간 포천문화원 사무국장, 7년7개월간 포천시육상경기연맹 전무이사를 거쳐 포천시 체육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에 임명됐다.

오 국장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학교체육의 토대를 구축하고 각 종목별 활성화를 통한 포천체육의 발전, 합리적인 체육회 운영 등 체육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려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가산면 청사 2010년 새 모습으로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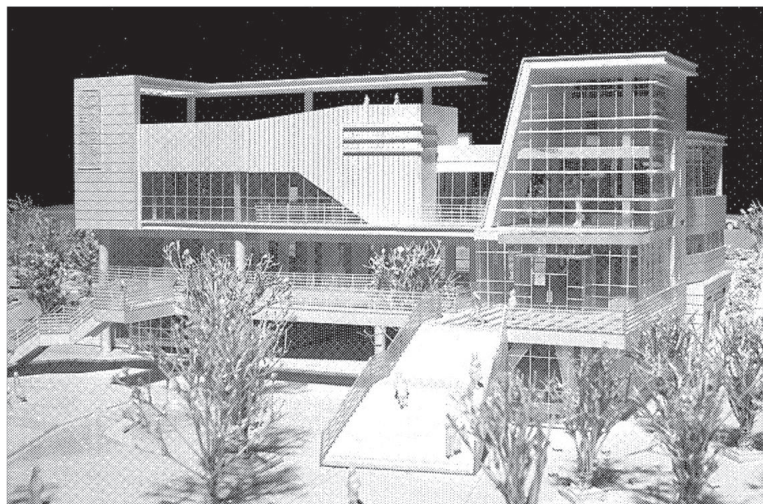
설계 현상공모 심사 결과 관 건축사무소 작품 선정

포천시는 가산면 마산리 601-1번지 등 8필지 일대에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갖춘 가산면 청사를 신축하게 된다.

새 청사는 6천725㎡ 부지 위에 연면적 1천631.45㎡ 규모로 총사업비 38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사용 중인 가산면사무소는 1992년도 건립된 건축물로서 2003년12월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시설로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청사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산면 청사가 포천시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자리잡게 예정이다.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희망하는 가운데 실시한 현상설계 공모 심사 결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한 단지계획 조성 및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주)관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이



포천시는 가산면 마산리 601-1번지 등 8필지 일대에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갖춘 가산면 청사를 신축하게 된다.(사진은 가산면 청사 조감도)

작품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을 부여한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주)다모종합건축사사무소에는 상금 3백만원, 가작으로 선정된 이담건축사사무소에는 상금 2백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의 문화 공간 역할을 할 가산면 청사는 앞으로 약 4개 월간의 설계기간을 통해 실시설계 및 기술인력을 완료한 후 내년 초 착공해 2010년 초에 완공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공공보건의료사업 ①

공공병원 중심의 가정간호 사업

포천·연천·가평·철원 지역 전문적인 간호 실시

포천병원은 지역 유일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 2001년 제1기(2001년~2005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실시했으며, 현재 2006년에 시작된 제2기(2006년~2010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2기 사업은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의료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고 포천시지역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인 공공의료 등록사업, 가정간호사업, 무의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무료간병지원 사업, 포천시 보건소와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 지역사회보건교육(산모교육, CPR교육 등),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서비스, 의료취약지역 및 취약시설의 무료진료사업, 기타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많은 포천시민들이 도움을 받도록 포천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 각 진료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 포천, 연천, 가평, 철원 지역 가정 방문해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한다. 2007년도 사업실적으로는 관리환자 254명에게 3천 540회의 방문 가정간호를 제공하여 합병증 예방 및 치료, 환자 및 가족 교육, 지역사회자원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가정간호란 입원에 준하는 계속적인 치료와 간호 관리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오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을 받은 전문 간호사가 담당주치의와 상의의 후 처방내용에 따라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치료 및 간호 관리를 시행하는 제도다.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간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회복과 재발을 돕고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전문 간호이다.

가정간호 대상자는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환자 ▶중풍 등의 뇌 손실 환자 ▶욕창 및 상처환자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 ▶기타 주치의가 가정간호대상자로 인정하여 의뢰하는 환자 등이다. 가정간호의 내용은 ▶환자 상태 측정 및 관찰, 활력증상 측정(혈압, 체온, 맥박, 호흡) ▶비위관 삽입, 위유관리 및 경관영양 ▶암환자 증상 및 통증관리 ▶욕창, 상처, 수술 부위 등의 치료 및 관리 ▶장루 및 방광수술, 정체도뇨관 관리, 배뇨 배변 훈련 ▶비구강 내 흡입, 기관지 절개관 교환 및 간호, 산소요법 ▶신생아관리(제대관리, 목욕 등), 우방관리 ▶각종임상검사(검사물 수집·혈액, 소변, 대변, 가래, 뇨당, 혈당, 산소포화도 등) ▶의사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및 주사 ▶환자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각종 가정 의료기구 사용법 교육 ▶보건소 유관기관(가사도우미, 이동목욕 등)으로 의뢰 등이다.

가정 간호를 신청하는 방법은 퇴원 예정 환자의 경우 담당주치의 및 간호사에게 신청하고 타병원 환자는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면 된다. 일반가정에서는 가정간호사와 먼저 상담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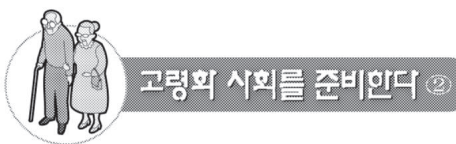
가정간호 비용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기본방문료	4,260	0	3,190
교통비	6,740	6,000	6,000
처치료	보통 20% 임 및 중증동통환자 10%	0	보통 15%
재료비	보통 20%	없음	보통 15%
	비급여 본인 100%	비급여 본인 100%	비급여 본인 1000%

*본 96회 까지 의료보험 적용됩니다.

가정 간호를 신청하는 방법은 퇴원 예정 환자의 경우 담당주치의 및 간호사에게 신청하고 타병원 환자는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면 된다. 일반가정에서는 가정간호사와 먼저 상담하면 된다.

안연숙 평강병원 강도림의원 포천병원 문의: 539-9290



고령화 사회를 준비한다 ②

방문요양의 행복 Up 사업

오늘도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하나인 가정봉사원과경센터에서 활동하시는 직원과 봉사자 선생님님들은 우리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심어 주시기 위해 밝은 표정과 행복한 마음으로 어르신들 가정으로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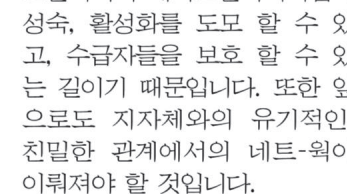
이렇게 옮겨 놓은 포천에서의 첫 발걸음이 5년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포천지역의 외롭게, 힘들게 지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가정봉사원들은 믿음을 드렸고, 그 믿음을 발판삼아 새로운 도약,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각의 기관들은 소외된 수급권자 및 저소득 지역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이어져 왔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운영체제가 2007년 하반기부터 변화되었습니다. 종전에 저소득층(기초수급자)을 대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였

던 공적부조사업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기관들은 보조금 일부 감소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부족한 부분을 장기요양수급액으로 충당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의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도·감독으로 본 기관들이 지역사회의 지원과 유관기관에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원방식이 변화하였고, 내년에는 지원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등급에서 제외된 수급권자 어르신들이 편안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포천지역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성숙,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친밀한 관계에서의 네트-웍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신재숙 포천노인복지센터 소장 생명: 534-4777, 534-8880